

제38회

# 숭대극회봄정기공연



작 : 이어령

기획 : 이충일

연출 : 오정열

세번은 짧게  
세번은 길게

■ 일시 ● 1988년 6월 2, 3, 4일 (화 2시, 화 6시)

■ 장소 ● 숭실대학교 대학극장

■ 주최 ● 숭실대학교 숭대극회

■ 후원 ● 숭실대학교 씨클연합회



## 격 려 사

### 총 장 김 치 선

날로 발전하되 박근과 연극예술 창조에 전념해온 숭대극회가 제38회 봄 정기 공연으로 이어령 作 “세번은 짧게 세번은 길게”를 공연하는意義는 크다고 봅니다.

연극 작품을 통해서 우리 승실의 짧은이들이 人間性에 대한 통찰과 社會에 대한 관찰과 또한 삶에 대한 목적에 대하여 종합적 체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극은 더 말할것도 없이 종합예술로써 모든 다른 예술의 표현양식이 복합된 하나의 예술 형식입니다. 따라서 자기 표현의 기술을 연마하고 달성하는 일에 치중하는 본교 교육 목표중의 한가지를 이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성취하는 일은 그지없이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승실의 캠퍼스에서 면학에 힘쓰는 여러분들은 미래의 개방사회의 주인공들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연극속에서 人間性의 진리를 발견하고 인생의 참뜻을 깨닫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번 공연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 짧고 패기 있고 지성있는 승실인들에게 보람이 되고 승실의 빛나는 역사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 조대의 글

### 극회장 권형진(무역 3)

승실의 맥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의 세계에 여러분을 모시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숭대극회에서는 제38회 봄 정기공연으로 각박해져가는 현대 사회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찾아보려는 이어령 作 “세번은 짧게 세번은 길게”를 준비하였습니다. 미숙한 저희들이지만 오셔서 우리의 무대위에 새로운 열기를 불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쇠는 두드릴수록 더 강해지듯이 여러분의 격려와 질타가 무대위에서 땀 흘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연습기간 동안 더위속에서도 수업을 쉬면서 (?)까지 빠짐없이 연습에 참여해준 cast 들, 바쁘게 뛰어 다니다 살빠진 기획형, 극회실에서 숙식을 해가며 준비한 연출형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끌으로 이 연극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깃들기를 기원합니다.

## 작가 및 작품연구

**李御寧**: 1934. 1 충남 아산 출생, 서울대 문리대 국문과 및 대학원졸업, 서울대 문리대 강사 및 현 이화여대 국문과 교수,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논설 위원, 현재 월간『文學思想』主幹, 1979. 10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

**회곡**: 「가석을 파는 백화점」 1977, 「사자와의 경주」 1977, 「세번은 짧게 세번은 길게」 1979

### - 줄거리 -

에프트 맨이 직업인 김종실이라는 者가 알라클라 회사와의 광고 계약금으로 백지수표를 받고 당황한 나머지 건물의 구조가 비슷한 아파트의 자기집보다 한층 위인 66호로 집을 잘못 찾아가는 데서 사건의 발단은 시작된다.

출입문의 고장으로,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같이보낸 김종실과 그 집의 주인인 쿨걸은 다음날 남편의 실종을 신고한 김종실의 부인에 의해, 그리고 매스미디어와 소문등에 의해 그 아파트 방에 갇히게 된다.

실종사건에 백지수표라는 것이 끼어들게 되자 사건은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과장과 비약을 계속하다가, 결국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아직 살아있는 김종실을 죽였다고 단정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사건을 매듭지으려 한다. 제 자신의 죽음이 주는 많은 의미를 생각하고 자신은 이미 태어났을때부터 실종되었을지 모른다며, 유일한 도피처였던 장소마저 빼앗기는 것을 암시하는 ‘세번은 짧게 세번은 길게, 즉 여자를 찾는 그 누군가가 누른 벤소리를 듣자 그는 자살을 한다.

### - 작품분석 -

이 작품에서는 인간은 그들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 소외되고, 또 그런 인간들중에서도 김종실과 쿨걸은 그 외의 사람들과 대조가되면서 대조가 되는 그들에게 소외되어, 결국은 죽음이라는 곳에 도달한다는 점에 그 초점을 맞춘것 같다.

우선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살펴보자면 첫째로, 백지수표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피차 명예와 인격으로 거래할 때 쓰는 수법인데 이 작품속에서의 사회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것때문에 김종실은 당황하여 집을 잘못든 것이며, 이 백지수표는 부인으로 하여금 재빨리 실종신고를 하게 하였고, 결국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서 사건을 비약, 김종실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장본인이 되었다.

둘째로, 그 원인은 〈아파트〉라는 공간적인 배경을 들 수 있다. 이 아파트라는 것은 건물의 구조가 똑같은 것으로 변화없는 생활, 심심하고 따분하며 예외가 없는 일상사를 암시 하기도 한다. 사건도 이 일상사가 깨어지고 모든게 달라지던날(즉, 백지수표, 찌찌찌 찌-찌-찌의 벤소리, 방의가구, 여자의 목소리 등) 일어난다. 권태속에 빠진 현대인들은 화재에 굽주려 있으며 보다 극적이며 센세이셔널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 작은 김종실씨의 실종사건을 제 구미에 맞게 각색을 하며 심지어는 공상과학만화의 수준으로까지 확대시키는 현대인들의 심리는 이 아파트라는 공간적배경과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김종실과 쿨걸, 이 두사람의 직업이 그 원인이다.

이들은 직업적으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직업이 있어도 무직자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이다. 무대 뒤에 숨어서 연극의 효과를 돋는 에프트 맨인 김종실씨와 침대뒤에 숨어서 남의 연극을 돋는 쿨걸인 여인은 “누가 뭘하는 사람인가 묻는게 제일 무섭다”라는 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직업적 공통점을 갖는다. 그래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날, 쿨걸은 김종실씨 집에 몰려든 경찰때문에 두려워한 나머지 그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은 것이다. 이것은 사건을 초기에 막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커지게 만든 원인이 된다. 또, 김종실씨의 효과음으로 만드는 직업은 〈부부불화설〉이라는 오해를 낳아 부인으로 하여금 〈실종신고→죽음인정〉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넷째로, 실종된 김종실씨의 사건에 편승하여 자신의 이익을 찾으려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알라클라 회사가 바로 그것인데 김종실을 천재로 과장하고 사건을 확대하여 선전효과를 노렸던 점이다. 또 김종실의 부인은 명예회복에 급급해 했고, 현상금을 타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바라는 방향으로 보다 극적으로 사건을 저마다 물고가려는 무책임한 시민의 과장된 정보제공이 그것이다.

‘믿을 수 없는 사실보다 믿을 수 있는 거짓말’이 통하는 사회, ‘믿을 수 있는 거짓말 보다는 거짓말 같은 사실 속에서 살며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은 사실이라도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진짜 소리보다 가짜로 만든 소리를 진짜로 믿기 때문에 에프트 맨이 필요한 사회에서 사는것이 쿨걸의 아파트 방밖의 세상이라면 그 안의 세상은 남이 밟아도 부서지지 않는 두꺼비 집, 조개, 단단한 껍질을 두른 소라’ 즉 거짓말 같은 진실이 사는 곳이다.

12개의 대문과 10칸의 대청마루가 있어야만 휘황한 등불만 무대앞에 설 수 있으며, 추도식 때에 박사나 회장의 칭호가 있어야만 우인대표가 되며, 애도사는 남의 부고를 이용해서 외도를 하고 남의 장례식을 이용해서 체면과 명예를 빛내는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모범 작문이 되는, 그런것이 통하는 것이 문밖의 세상이라면 차라리 문안의 세상은 죽음일지언정 믿을 수 있는 거짓말보다 믿을 수 없는 진실이 소중한 나라 즉 따뜻한 섬이다.

## 기획의 변



기획  
이 층 일(무역3)

여의도!  
명동!  
종로!  
속칭 금융가의 높은 빌딩들이 더더욱  
높아보이는 이유는?  
1층에서 3층  
지하에서 21층  
또다시 1층에서 12층  
오를때의 기대감과 희망이 내려올때면  
무참히 깨지는 순간  
개새끼들.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님들과 학교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Bears Camp

816-4371

『승실인의  
낭만이 있는곳』

후문      승실대      정문

## STAFF



무대감독  
박 경 근(전자3)



무대미술  
최 민 구(화공4)



음향1  
김 현 순(독문3)



음향2  
충 희 정(불문2)



소 품  
박 준 희(사사3)



의 상  
이 재 현(철학1)



조 명  
손 진 용(산공2)



분 장  
노 경 신(무역2)



연출보  
김 옥 경(국문1)

## CAST

### 연출의 변



연 출  
오 정 열(사학 4)

조용한 한 구석에서 떠든다.

아무리 소리쳐도 들을 수가 없다

야! 임마 쪽바로 안해.

가느다란 빛이 온몸으로 향한다

딩굴고 또 굴려도 느끼지 못한다

야! 이년아 똑바로 못해.

살과 살이 부딪치고 눈과 눈이 마주칠때

눈물과 환희, 슬픔과 웃음,

그리고는 허탈만이…

우리는 늘 우리라 말하지만 늘 우리가 되지

못함을 어찌할까?

나, 너가 아닌 우리 일수는 없을까?



김종실 1  
하 승 민(전 산3)



김종실 2  
권 형 진(무역3)



목 수  
김 진 희(화 계2)



해설자  
안 성 문(건축1)



기 자  
박 원 상(독문1)



아나운서  
김 태 완(전 기1)



박 황-재  
박 황-재(전 기1)



여자 1  
백 로 라(국문2)



여자 2  
권 승 혜(불문1)

# 공연연보

回	年 講	作 品 名	演 出
	1921년 6 : 13	연희회 소인극 "절 세영을 나불제용의 말로" "대비극 노예의 탐"	
	1923년 7 : 7, 21	전현국 "우리의 행진" "동백꽃" "십년 후" "기제인간" 렘넷 청년회 주관	
	1923년 7 : 28, 29	"소인연극" 고학생후원회 주관	
1	1965년 11 :	"체궁으로 돌아오다" 황영식作 이반기획	천진호
2	1968년 10 : 28	"Our Town" by Thornton Wilder	이태주
3	1969년 10 : 10	"의자들" 이오네스코作	이태주
4	1969년 10 : 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5	1970년 5 : 15	"聖者와 생풀"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재
6	1970년 10 : 28, 29	"驕貴의 終末" 사부영·에세트作	김양기
7回 演劇祭	1971년 5 : 26, 27, 28, 31 6 : 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전남목 살화" 윤병조作 "당제제독에 대해서" 안톤·셰흘작 "황금단지"(로마극) 투라우티스작 "고도를 기다리며" 사유영·에세트作	정종화 주정서 한영재 유근태 차현재
8	1971년 11 : 4, 5, 11	"저격병의 그림자" 산·오케이시작	차현재
9	1972년 5 : 25, 26, 27	"생일파티" H. 편터作	한영재
10	1973년 5 : 21, 22, 23	"미시시피씨의 결혼" F. 위렌마트作	고봉인
11	1973년 10 : 25, 26, 27	"기쁨" H. 편터作 "기도" (소극장) E. 아리엘作	차현재
12	1974년 5 : 25, 28, 30	"정의의 사람들" (전5막) A. 카퓌작	정종화
1	1975년 3 : 10, 11, 12	"악마와 풍" W. Arving作 (신입생 환영)	김홍수
13	1975년 6 : 9, 10, 12, 13	"싸움터의 산책" "도스또예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안홍순
14	1975년 10 : 29, 30, 31	"비디안과 방화병" Max. Frisch作	안홍순
2	1976년 10 : 29, 30, 31	"보석과 예인" 이강백作 (신입생 환영)	김득남
15	1976년 6 : 1, 2, 3	"인터뷰" 장·클로드·반·이펠리作	김득남
16	1976년 10 : 25, 26, 27, 28	"땡" 장·클로드·반·이펠리作	김영덕
3	1977년 3 : 16, 17, 18	"술병" 윤대성作 (신입생 환영)	안홍순
17	1977년 6 : 15, 16, 17, 18	"EQUUS" 피터·에퍼作	김영덕
18	1977년 10 : 10, 11, 12, 13	"EQUUS" 피터·에퍼作	김영덕
19	1978년 6 : 5, 6	"COUNTER POINT" By Olov Hartman作	김영덕

回	年 講	作 品 名	演 出
20	1978년 10 : 24	"EQUUS" (대학연극제 참가) 피터·에퍼作	김영덕
4	1979년 3 : 29, 30	"꽃" 이강백作 (신입생 환영)	정재호
21	1979년 6 : 18, 19	"한강 2979" 김영덕作	이병국
22	1979년 9 : 29, 10 : 2	"소분" 오태식作	황정순
23	1980년 11 : 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플라크作	박양진
5	1981년 3 : 30, 31	"ARIA DA CAPO" E. St. V. Millay作 (신입생 환영)	오세환
24	1981년 6 : 12, 13	"노부인의 방문" F. 위렌마트作	황정순
25	1981년 11 : 12, 13, 14	"달맞이 꽃" 김병중作	황정순
6	1982년 3 : 24, 25	"임금님 켜는 달나귀 켜" 김용학作 (신입생 환영)	이용섭
26	1982년 6 : 12, 13	"까리글라" A. 카워作	지숙
27	1982년 10 : 7, 8	"해도우 박스" M. 크리스토퍼作	황정순
7	1983년 4 : 16, 17	"불해코메디" 피터세퍼作 (신입생 환영)	홍여석
28	1983년 6 : 20, 21	"미시시피씨의 결혼" F. 위렌마트作	김영덕
29	1983년 10 : 7, 8	"트레버" John Bowen作	오정열
8	1984년 3 : 8, 9	"개인의 소공간" N. Holand作 (신입생 환영)	김인보
30	1984년 5 : 24, 25, 26	"도가니" (The crucible) A. Miller ff	오세환
31	1984년 10 : 11, 12, 13	"변천소" John Stoltenberg作	이용섭
32	1985년 5 : 9, 10, 11	"빈민굴" Maxim Gorky	이용섭
9	1985년 7 : 20	"ARIA DA CAPO" E. St. V. Millay作 (신입생 환영)	하승민
33	1985년 11 : 21, 22, 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반니노·파레스키作	송기범
10	1986년 3 : 17, 18, 19	"인형의 집" 헨릭·立面作	김정은 위성진
34	1986년 6 : 4, 5, 6	"에쿠우스" "EQUUS" 피터·에퍼作	하승민
35	1986년 9 : 11, 12, 13	"코뿔소" E. 이오네스코作	송기범
11	1987년 3 : 12, 13, 14	"미리운 손" J. P. 샤르트르作 (신입생 환영)	박경근
36	1987년 6 : 3, 4, 5	"한여름밤의 꿈" W. Shakespeare	오정열
37	1987년 9 : 10, 11, 12	"오해" A. Camus	박경근
12	1988년 3 : 24, 25, 26	"불가불가" 이현화作	황금실